

사회복지법인 장선종합복지공동체

이 사 회 의 록

1. 일 시 : 2019년 10월 31일(목) 11:00

2. 장 소 : 장선복지관 2층 이사장실

3. 참석이사 : 대표이사 박 봉 관
이 사 이 병 희
이 사 허 홍 욱
이 사 김 인 숙

4. 의 안 :

- ① 임원의 사임 처리
- ② 갑질진상조사위원회 종료 보고

사 회 대표이사 박봉관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거치며 각 기관 시설장들의 반성과 각오, 감사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 시정할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들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중 하나인 신태용 감사님 사임서 제출로 인하여 사임 심의를 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외부추천이사이신 윤성호 이사님도 사임서를 제출하시어 사임 심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은 신태용 감사 갑질 진상 조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지어 갑질진상조사위원회 종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허홍욱

신태용 감사가 사임서 제출하기를 희망하였으니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임서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등 감정적인 내용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사임서 사유를 살펴 본 결과 갑질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갑질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갑질에 대한 뱃음을 지어야 하는 관계로, 신태용 감사는 갑질진상조사 위 최종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사임처리 한다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김인숙

사임서 내용은 창원의린이집에 결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보다는 갑질진상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신태용 감사님의 개인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상적인 결산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희 이사회에서 사임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사 김인숙

사임서는 수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 허홍욱

신태용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렴할 사항은 받아들이고, 사임서 제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외부 추천감사이므로 구청에도 사임서가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산 감사 후 9월 초 구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모두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 외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근본적 부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태용 감사가 결산 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질진상조사위원회 최종의견은 신태용 감사는 갑질을 한 것이 맞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도 거짓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사임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외부 추천이사이신 윤성호 이사님은 현재 학교일로 업무가 바빠 이사회 참석을 못하고 있어 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사임서를 접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구청 특별 점검 결과, 부정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므로 장선어린이집 원장 박규미는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진상위에 징계수위 요청까지 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지어 주십사 요청이 들어온 바,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수위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남외숙원장은 퇴직을 하였으므로 원인이 소멸된 상태이며, 박규미 원장의 징계처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인숙

향후 과오 발생 시 내부, 외부적으로 처리절차 방안이 이사회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시설장들의 공치사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허홍욱

이전 과오 처리 시 징계처리 했던 것을 토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발생할 과오 처리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사 김인숙

향후 절차 상 결산 감사 대상자인 장선어린이집 박규미 원장은 의견서 접수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법인 산하 기관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결산 감사 지적사항 중 업무 처리 절차가 잘 못 된 점, 금전적인 부분은 잘못이 없는 점, 회계부정은 아닌 점, 시설장으로서의 시설관리 책임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김인숙

공적인 법인이므로, 이사님들께서는 이번 건은 엄하게 처벌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실태용 감사가 사임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강도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으로 이사들도 힘들었지만,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인식됩니다. 사실확인서를 받고, 내부기강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사실확인서는 접수 받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사임

이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어느 정도 징계처리를 하면 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허홍욱

견책, 경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단 경고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금전적인 과오에 따른 감봉조치보다는 낮은 수위로 징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환수조치 건이 있으므로 징계처리 토대를 잘 잡아 놔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 김인숙

이번 징계는 사례로 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봉 몇 개월 등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사 이병희

감봉은 호봉수를 낮추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1호봉 격하, 6개월 감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사 허홍욱

동의합니다.

이사 이병희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박봉관

이번 이사회에서 갑질진상조사위원회 종료를 선언하며, 징계처리 수위도 결정하였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예”로 답하다.

사회 대표이사 박봉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사장을 하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분이 이사장을 하더라도 주 1일 이상 반드시 법인으로 출근해서 결제 관리 등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에 대한 일정의 직책보조비를 마련해서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관련 시설장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이사장 직책보조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대표이사 박봉관

이사님들 잦은 이사회로 일정을 번거롭게 해 드렸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저희 법인 및 산하시설도 경각심을 갖고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시 이사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대표이사 박 봉 관



이 사 이 병 희



이 사 허 홍 욱



이 사 김 인 숙



사회복지법인 장선종합복지공동체 대표이사 귀하